

이홍재의 세상만사



“남자에게 딱 좋아, 여자는 더 좋아” TV 광고에 출연해 이렇게 외치던 인물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요즘엔 개그맨 엄용수가 나와서 이전과 똑같은 ‘멘트’를 날린다. 건강식품 회사의 회장인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가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서울에서 온 언론인 선배 한 분을 통해서였다. TV 광고에 직접 출연해 유명해지자 이번 4·13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상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올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개그맨을 대타(代打)로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그 선배 말을 듣고 나서 검색해 보니, 이미 서울에서는 이들의 ‘3부자 출마’가 화제가 돼 있었다. 회장인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서울 3개 지역에서 동시에 뛰고 있다는 것이다. 출마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 했다.

국민의 건강이라면 아마도 육체적인 건강일시 분명하겠지만, 요즘 들려오는 총선 관련 소식은

온통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게 많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는 욕심이 앞선 나머지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만 해도 그렇다. 스스로 여성을 제외하고 나면 최상위 순번인 2번을 꿰잡으로써 비례대표로만 5선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그는 버럭 화를 냈다. 비록 나중에 사퇴 의사를 접긴 했지만 한때 “이 따구로 대접하는 정당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로 파란을 일으켰다.

어지러운 공천 막장 드라마

다 죽어 가는 더민주당을 가까스로 살려 놓았다가 점에 보던 그의 2번 셀프공천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다지 비판받을 일도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전에 했던 말들이다. “내 나이가 77세예요. 비례대표 그런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대표 취임 직후 했던 말은 그는 여반장(如反掌)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었다.

그의 셀프공천을 지켜보노라니 문득 ‘친구불피’(親仇不避)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친척(親)이 됐든 원수(仇)가 됐든, 적절한 자리라면 꺼릴 필요가 없다(不避)는 뜻이다. 춘추시대(春秋時

국민에게 딱 좋아! 서민은 더 좋아!

대) 기황양(祁黃羊)이라는 사람의 고사(故事)에서 비롯됐다. 기황양은 진(晉)나라의 대부였는데 공정하기로 이름났다. 평공(平公)이 “남양(南陽) 현령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누가 있겠나?” 물었다. 해호(解狐)라는 사람을 천거하자 “그대의 원수가 아닌가?” 하며 왕이 놀랐다. 이 때 기황양의 대답이 참으로 멋있다. “인재를 천거하라 하셔서 원수를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뒤 군사를 통수하는 위(尉)라는 자리에 누가 좋은가를 묻자 기황양은 기오(祁午)를 천거한다. 왕이 “기오는 그대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묻자 기황양은 또 이렇게 말한다. “적임자를 물어 그 대로 답했을 뿐입니다.”

공자(孔子)가 이 일을 두고 “밖으로는 원수라 하여 피하지 않았고, 안으로는 아들이라 하여 피하지 않았으니 기황양이야말로 공평무사하다”라고 평했다 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도 기황양 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을 추천했던 것일까? 아무래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나라를 살리고 양민을 살리겠다는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가 총선이 끝난 뒤 친노(친 노무현) 세력에 의해 토사구팽(兔死狗烹)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설사 대권을 탐한다 한들 뭐라 토를 달진 않겠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한 판을 이긴 뒤 최중국에게서도 초반 승기를 잡았다 결국 패배한 이세돌은, 시간이 지난 뒤 ‘소貪대실’(小貪大失 :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음)을 패인(敗因)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의 비례대표 5선 도전 또한 나중에 김메이커로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선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소탐대실의 패착(敗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찌 됐든 이번 제20대 총선은 공천 과정에서 역대 최악의 난장판을 연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다 배신자로 낙인찍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끝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친박(친 박근혜)의 ‘비박 학살’ 과정은 차마 낫 뜨거워 못 볼 지경이었다.

송중기 같은 인물 어디 없나

물론 국회의원 욕심에만 함몰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조운선 전 정무수석이 그런 경우라 하겠다. 그녀는 서초갑 후보 여론조사 경선에서 1%도 채 안 되는 지지율 차이로 패배했으나 깨끗이 승복하고, 당 지도부의 ‘용산 지역 진출’ 배려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후보를 사양하면서 “어제까지 ‘서초의 딸’이라 해 왔는데 어제 한 순간에 ‘용산의 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배지라면 사족(四足)을 못 쓰는 이가 많다 보니 그녀의 이야기는 아주 당연함에도 매우 아름답게 느껴진다.

꺼진다. 거듭된 국회의원 출마 요청을 거절한 이 지역 현직 자치단체장도 있다. 한시 웃음 띤 얼굴인 그의 이름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지만, 3선 단체장인 그는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수뇌부에서 동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겸양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면 봉사 활동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지러운 선거판 속에서 이런 인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요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중기(유시진 역)의 인기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다. 수많은 아중마들을 ‘심쿵’(심장이 쿵거릴 정도로 설렘)에 빠뜨린 그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밀당’(밀고 당기기) 없이 사랑을 향해 돌진하는 남자다움에다, 장교다운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까지 갖췄다. 그가 당장 출마한다면 당선은 ‘때 놓은 당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나선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국민에게 딱 좋아! 서민은 더 좋아!”라며 환호(歡呼)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관망은 인물보다는 그나마 덜 나쁜 인물을 뽑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 않음’이다. <주필>

운영권 재협상 상반기 마무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무등야구장 지하에 주차장?

광주시, 손익평가위 회의...기아측과 본격 협상 임대수입 등 자산 평가액 산정 결과 내달 나와

특혜 논란이 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4일 시청에서 챔피언스필드 운영에 따른 손익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고 기아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증원 관계로 논란이 됐던 손익평가 위원 수는 애초대로 5명으로 정해졌다. 광주시와 기아차, 양측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각 1명,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와 함께 기아 측이 제출한 야구장 수익과 지출 등 운영수익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2차 회의는 회계 전문가의 관련 자료 검토 뒤 2~3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아측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과 2015년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야구장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말 야구장 운영권, 명칭사용권, 임대수입 등 새 야구장에

대한 가격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 운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운 명칭사용권, 광고권, 미입대 수익시설공간 등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액도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운영결과는 4월말께 나올 전망이다.

광주시가 2011년 새 야구장 공사비 994억원 중 300억원을 부담한 기아차 측에 25년간 야구장 운영권, 광고권 등 무상 사용권을 줬다. 하지만 이 협약에 대해 시민회,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요구가 잇달았다. 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013년 4월 재협약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2~3차례 손익평가위원회를 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운영권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챔피언스필드는 2014년 3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7646㎡ 규모로 준공·개장했다.

/윤영기자 penfoot@



광주시, 타당성 조사·랜드마크 조성 등 용역 발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등경기장 야구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2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활용 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이 야구장은 챔피언스필드 개장 전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됐었다. 현재 아마야구와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이 쓰고 있다.

시가 제시한 용역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등경기장 야구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경기 때마다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가 편해지면서 무등경기장은 물론 챔피언스필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별도로 시 재정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조성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시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시는 챔피언스필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0여억원을 들여 옛 보훈회관 주변 715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400대 수용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3곳의 부지도 선정해둔 상태다.

용역과제에는 “주변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 및 리모델링방안(야구장 존치 여부, 리모델링 추진 시 그 범위 및 용도포함)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했다.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무등경기장 야구장 주변과 연계한 도심재생전략과 무등야구장을 광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시는 앞서 무등야구장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시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토요일,공휴일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턴트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세요.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수시 접수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장소 :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Today 옥션 소장 이은진
----------------	--------------------

실전경매 교수 양성용의 요람

한국토지경매학원

☎ 062-229-1512

봄(그림)을 선물하세요

착한가격(20~90만원)으로 유명 작품 한점 소장하세요

특별한날에 (개업, 승진, 이사, 기념일 등) 멋진 그림 한점 선물하신다면 ~

- 광주 전 지역 배달가능
- 유명 작가분 그림도 판매 합니다.

문화갤러리

Open | Am 10 ~ Pm 6시 (일요일 휴무)

010-6233-1950